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 활동 보도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강북구 조례연구회' 본격 활동

운영위 승인받아 2016년 6월까지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 벌이기로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구 조례연구회'가 지난 9월7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6년 6월까지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을 벌이게 됐으며, 9월17일 장동우 부의장, 이영심 운영위원장, 구본승 행정보건의위원장, 한동진 의원, 김영준 의원, 유인에 의원, 김명숙 의원 등이 참석하여 첫모임을 가졌다.

'강북구 조례연구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의제를 발굴해 국민의 복리 증진 등에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으며, 17일 첫 모임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다.

연구회에서는 3개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불합리한 조항과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추후 세부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모임에서 개선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구 조례연구회'가 17일 첫모임을 가졌다.

방안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조례 개선 방안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며, 모임의 운영방법과 향후 10월 두 번째 모임

에 관한 일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연구회 모임을 마무리했다.

동북일보 2면

강북구의회, 「강북구 조례연구회」 본격 활동

3개 조례의 살펴보고 불합리한 조항과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 논의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 의원연구단체인 「강북구 조례연구회」가 지난 9월 7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6년 6월까지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을 벌이게 되었으며, 9월 17일 장동우 부의장, 이영심 운영위원장, 구본승 행정보건의위원장, 한동진 의원, 김영준 의원, 유인에 의원, 김명숙 의원 등이 참석하여 첫모임을 가졌다.

『강북구 조례연구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의제를 발굴해 국민의 복리 증진 등에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으며, 9월 17일 첫 모임에서 ▲ 서울특



▲ 강북구 의회 강북구 조례연구회 회의장면.

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다.

연구회에서는 3개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불합리한 조항과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추후 세부적인 부분을 면

밀히 검토하여 다음 모임에서 개선 방안 등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조례 개선 방안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며, 모임의 운영방법과 향후 10월 두 번째 모임에 관한 일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연구회 모임을 마무리하였다.

강북구의회, 「강북구 조례연구회」 본격 활동 시작

3개 조례안 내용 검토 후 불합리한 조항과 문제점 개선 방안 논의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 의원연구단체인 『강북구 조례연구회』가 지난 7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6년 6월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례연구회는 지난 17일 장동우 부의장, 이영심 운영위원장, 구본승 행정정보전위원장, 한동진 의원, 김영준 의원, 유인애 의원, 김명숙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모임을 가졌다.

조례연구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의제를 발굴해 구민의 복리 증진 등에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다.

17일 첫 모임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다.

연구회에서는 3개 조례의 전반적인



강북구 조례연구회의 첫 번째 회의 모습.

내용을 살펴보고 불합리한 조항과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추후 세부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모임에서 개선 방안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조례 개선 방안

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반영할 예정으로, 모임의 운영방법과 향후 10월 두 번째 모임에 관한 일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연구회 모임을 마무리했다.

강북구의회, '강북구 조례연구회' 본격 활동 시작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 의원연구단체인 '강북구 조례연구회'가 지난 7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6년 6월까지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을 벌이게 됐다. 이에 지난 17일 장동우 부의장, 이영심 운영위원장, 구본승 행정정보전위원장, 한동진 의원, 김영준 의원, 유인애 의원, 김명숙 의원 등이 참석해 첫모임을 가졌다.

이번 '강북구 조례연구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의제를 발굴해 구민의 복리 증진 등에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첫 모임에서는 ▲ 서울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서울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 서울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다.

이어 연구회에서는 3개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불합리한 조항과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추후 세부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모임에서 개선 방안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조례 개선 방안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며, 모임의 운영방법과 향후 10월 두 번째 모임에 관한 일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연구회 모임을 마무리했다.

유영일 기자